

농촌맞춤형 도시재생사업 추진 탄력

임실군-토지주택공사-농어촌공사 업무협약 체결

임실군과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농어촌공사가 농촌맞춤형 도시재생사업에 손을 맞잡았다.

12일 심 민 임실군수는 임실군청에서 임정수 한국토지주택공사 전북지역본부장과 이강환 한국농어촌공사 전북지역본부장이 참석한 가운데 농촌맞춤형 도시재생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은 농촌지역의 실정에 맞는 도시재생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농촌지역개발사업 전문기관과의 공조체제를 이뤄 국가예산확보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이뤄졌다.

특히 도시재생 뉴딜사업과 농촌중심지활성화 사업을 통합적으로 구성,

오수면의 종합적인 발전계획을 수립하는 중장기적인 성장방향을 도출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주요 협약내용은 도시재생 및 농촌중심지사업의 계획 수립 및 추진체계 구축, 재생사업 지역 내 공공임대주택 건설·공급 및 생활편의시설 등의 건설 등을 담고 있다.

또한, 청년 및 사회적 경제조직 창업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한 협력사업을 발굴하고, 정부공모사업 공동 대응방안 등도 함께 검토한다.

이외에도 재생사업 및 농촌중심지사업 관련사항 등을 공동 사업기획하는 역할 등도 담고 있다.

군은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한국토지주택공사는 도시재생사업, 한국농어촌공사는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과 관련하여 사업계획 수립 및 정부공모대응방안 등을 함께 모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임실군 농촌맞춤형 도시재생사업의 기틀을 마련해 농촌지역에 맞는 재생사업이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심 민 군수는 “농촌지역 실정에 맞는 농촌맞춤형 도시재생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각 기관과 긴밀하게 협력해 나가겠다”며 “성공적인 사업추진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와 더 많은 일자리를 창출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임실=진홍영 기자



12일 심 민 임실군수는 임실군청에서 임정수 한국토지주택공사 전북지역본부장과 이강환 한국농어촌공사 전북지역본부장이 참석한 가운데 농촌맞춤형 도시재생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순창, 금강이엔지와 풍산제2농공단지 투자협약 체결

신재생에너지 태양광구조물 생산에 65억원 투자계획

순창군에 유망기업들이 속속 입주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대가 모아지고 있다. 이와 관련 군은 12일 전북 전주에 소재한 금강이엔지(주)와 투자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투자협약서에는 기업 측은 투자와 고용창출 노력을, 군은 관련 법령 및 조례에 따른 행정적, 재정적 지원에 협조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금강이엔지(주)는 지난 2009년에 설립된 지속가능한 에너지원의 연구개발

과 제품개발을 하는 신재생에너지 설계 및 시공전문기업이다. 또한 이노비스, 기업부설연구소, 고성장 기업, 품질경영시스템(ISO 90001) 등의 지정을 통해 탄탄한 중소기업으로 인정받았으며, 앞으로 육상 태양광을 비롯해 해상까지 그 사업범위를 넓힐 계획이다. 이번 업무협약으로 금강이엔지(주)는 공장부지를 풍산 제2농공단지

에 건축면적 8,945㎡ 규모로 공장이 들어설 예정인 가운데 향후 시설투자에 65억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군은 앞으로 공사가 완공되어 운영에 들어가면, 연간 매출액 50억, 지역고용인력 20명의 인력창출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금강이엔지(주)의 신설투자로 관내 지역인력 고용효과와 경기 활성화가 기대되는 만큼 군도 산업통상자원부 고시에 따라 설비투자금액의 27% 범위 내에서 지방투자촉진보조금 15억여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순창=이양원 기자

남원시의회, 정례회 개최

남원시의회(의장 윤지홍)는 12일부터 12월 13일까지 32일간의 일정으로 제233회 정례회를 운영한다.

남원시의회 이번 정례회에서는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비롯해 2020년도 예산안 및 각종 기금운용

계획안의 심사와 시정질문 등이 예정되어 있다. 주요일정은 13일부터 21일까지 상임위원회별 행정사무감사를, 22일 제2차 본회의에서는 시장의 예산안 제안설명과 시정전반에 대한 시정질문을, 25일부터 12월 3일까지는 상임위 예산안 및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할 예정이며,

12월 4일부터 12월 12일까지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예산안을 심사할 계획이다.

윤지홍 의장은 개회사에서 “의원들께서는 생산적인 정책감사와 심도 있는 예산안 심사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남원=김기두 기자

국민체력100 대국민 참여 캠페인

남원시, 11일부터 3주간

남원시에서는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주최하는 2019년 국민체력 100 대국민 참여를 위한 캠페인을 11월 11일부터 3주간 진행한다.

온라인 이벤트와 오프라인 이벤트로 나누어져 진행되는 이번 캠페인은 국민들의 체력을 높이기 위해 올해 처음으로 실시하는 것으로, ▲체력인증 참가이벤트(비경쟁) ▲스포츠활동인증 참가이벤트(비경쟁) ▲소문내기 이벤트(경쟁/비경쟁)가 있으며, 참가기간은 11월 1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온 라인 캠페인 페이지(www.nfa100challenge.com)에서 신청할 수 있다.

오프라인 이벤트는 11월 23일 오전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전국 체력인증센터에서 센터별로 10개 팀 이내로 진행되고, 참가신청은 오는 11월 21일까지 이벤트 페이지에서 선착순으로 진행되며, 만 13세 이상 4인 이상 10인 이하로 팀을 구성해 연령별 체력 측정을 실시하고 팀 점수를 산출하는 방식이다.

입상자는 여행상품권(1위300만원, 2위200만원, 3위100만원 상당)이 지급되며, 개별 참가자 경품은 추첨으로 사이판 여행권, 스포츠 시계, 모바일 쿠폰 등이 지급되며, 자세한 사항은 남원체력인증센터(063-633-7330)로 문의하거나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남원=김기두 기자

임실군 미세먼지 차단 자동차 배출가스 특별점검

임실군이 미세먼지가 심해지는 가을, 겨울철 미세먼지 감축을 위해 이달 22일까지 운행차량 배출가스 특별 점검에 나선다.

미세먼지 주요 발생원인 자동차 배출가스 관리 강화를 위해 미세먼지 발생량이 높은 버스과 화물차 등 경유 차량을 집중 점검한다.

점검 방식은 인력과 장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차량을 정차시키지 않고 주행차량을 영상장비로 촬영한 뒤 모니터를 통해 판독하는 비디오키메라 방식으로 시행한다.

점검반은 전주-남원 간 국도변 오르막길 등지에서 주행 중인 차량의 배출가스를 영상장비로 촬영하여 모니터를 통해 매연도를 판독하고, 배출허용 기준치를 초과한 차량에 대해선 차량 정비 및 개선을 제도 할 방침이다.

손석봉 환경보호과장은 “자동차 배출가스가 미세먼지의 주요원인이라는 인식을 높여 나가고, 겨울철 미세먼지 발생을 줄이는데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전했다. /임실=진홍영 기자

순창, 상반기분 탄소포인트 인센티브 지급

985세대에 1600만원 내달 중

순창군이 에너지를 절약한 985세대에 탄소포인트 인센티브로 1600만원을 지급한다. 이는 탄소포인트 인센티브 제도에 가입한 세대 중 전기나 수도, 도시가스 사용량이 5% 이상 절약된 가구에 지급하는 것으로, 내달 중 지급될 예정이다.

탄소포인트 제도는 정부가 온실가스 감축 및 저탄소 녹색성장에 대한 시민의식과 참여 확대를 위해 도입됐다.

각 가구별 가입일 이전 2년간 평균 사용량 대비 에너지 감축율에 따라 연 2회 가량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으로, 전기나 수도, 도시가스 등 에너지 별로 5~10%미만시 연 1,500원에서 최대 1만원까지 지급하고,

10%이상일 경우에는 최대 2만원까지 지급된다.

이와 관련 군은 오는 11월 말까지 순창군민 중 현재 탄소포인트제에 미 가입된 가구에 대해서는 추가로 신청을 받을 계획이다.

신청은 탄소포인트제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회원가입하거나, 인터넷 사용이 어려운 세대는 해당 주소지의 읍면사무소를 찾아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순창군 환경수도과(063-650-1723)로 문의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탄소포인트제가 추구하는 환경문제는 모두가 함께 동참해야 할 부분이다”면서 “해결해야 할 환경문제다”면서 “아직 미가입된 가구는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순창=이양원 기자

지역 매아리

남원, 농식품산업 발전계획 중간보고회

남원시는 12일 남원시화장품산업 지원센터에서 김동규 부시장, 안전경제건설국장, 농업부시장 및 농식품분야 전문가, 지역농협 관계자, 농식품기업 대표, 생산자단체 등 4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농식품산업 발전계획 수립 연구용역 중간보고회를 가졌다.

이 연구용역은 이너뷰티식품 R&D 지원강화, 농업과 기업간 연계강화, 중소식품 기업육성, 전통식품(전통주) 산업육성, 지역전략식품, 향토식품, 기능성식품산업 육성분야에 중점을 두고 계획을 수립해 진행하고 있다.

이날 중간보고회에서는 신성장동력 창출분야, 산업화촉진분야, 수출시장 경쟁력강화분야 등 3대 전략사업과 이너뷰티사업, 디지털사업, 생산농가와 가공업체 연계강화사업 등 12대 핵심사업 및 식품소재 반가공사업, 오메가3 식품, 화장품, 관광산업화 등 23개 세부사업 발굴육성에 대한 보고로 진행되었다.

특히, 남원부각을 비롯한 전통식품 창업 등 새로운 일자리창출을 새로운 관점으로 떠올랐으며, 지역자원을 활용한 마을 및 지역현황에 맞는 6차산업 모델 개발 등 안정적이고 지속가능한 농업과 농식품산업이 토론을 통해 다양하게 제시된 의견이 제시되었다. /남원=김기두 기자

임실, 치즈·낙농산업 마스터플랜 수립

임실군이 치즈·낙농산업의 종합적인 미래비전과 중장기적인 마스터플랜 수립에 적극 나섰다.

군은 12일 군청회의실에서 생산과 가공, 유통, 관광체험을 포괄하는 종합적인 미래비전과 마스터플랜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 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날 연구용역 보고회는 심 민 군수를 비롯하여 관계 공무원과 임실치즈테마파크 등 출연기관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연구용역 보고회에서는 임실치즈테마파크 일원지 내 치즈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한 필요사업과 낙농업, 치즈가공산업을 포함한 종합발전 계획을 담고 있다.

미래비전 용역보고회에서는 대표관광지 기능 보완과 승가리 부근 관광지 개발, 낙농치즈산업 기반 유지 강화, 임실 치즈 체험 소비 강화 등 4대 중점과제 33개 세부사업에 대하여 지역농업네트워크협동조합 장성필 팀장의 보고와 상호 토론이 이뤄졌다.

특히 대표 관광지 기능 보완 방안으로 실내형 레포츠 체험관 구축과 자연경관 보강 사업, 모노레일 구축, 질라인 구축, 체험프로그램 차별화 등 임실군의 대표관광지인 임실치즈테마파크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방안들이 제시됐다. /임실=진홍영 기자

지구를 시원하게 식혀주는 에너지 절약 실천 방법

1. 사용하지 않는 전기제품은 플러그에서 뽑기
2. 전기세가 많이 나오는 제품 아껴쓰기
3. 겨울철 실내 온도를 20도로 유지하고 내복 입기
4. 전기 사용량이 많은 시간대에는 전기 사용량을 줄이기